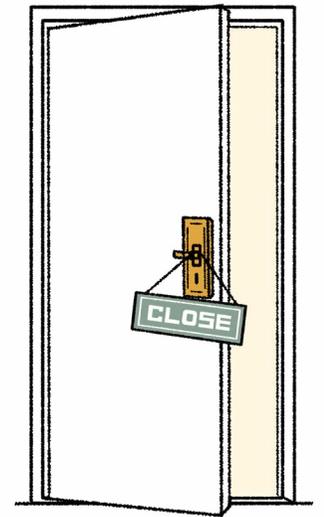




광주청년센터 문 닫습니다.



여는 글 저는 광주청년센터의 신입사원입니다	6p
광주청년센터의 2020	10p

청년이 없으면 광주청년센터 문 닫습니다

1. 청년의 일상을 정책으로 채우다	14p
흩어져 있는 청년정책, 하나로 모으기__청년정책 통합플랫폼 청년의 시선으로 청년정책을 알아볼 수 없을까?__청년정책홍보단 9월 19일, 우리 모두가 청년입니다__청년의 날 캠페인	
2. 청년의 일상을 안전하고 즐겁게	28p
코로나-19와 식사권 보장__광주청년 긴급구호물품 지원 나 혼자 '잘' 살고 싶다__광주청년 1인가구 지원 마음도 소독이 필요해__청년 마음건강 상담소 나에게 꼭 맞는 정책 솔루션__청년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청년에게 더 많은 경험과 기회를__광주청년 일경험드림 사업(공익활동형),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	
3. 청년의 일상이 정책이 되다	48p
청년의 시선으로 사회를 얘기하다__청년정책 실현실 청년정책, 혼자 하면 안 된다__청년정책 교류 및 네트워크	
4. 광주청년센터도 당신의 정책입니다	68p
지하의 문 닫고, 지상의 문 엽니다__광주청년센터의 공간	

청년과 함께 광주청년센터 문답 씁니다

1. 센터장	78p
광주청년센터는 뭐하는 곳인가요? 광주청년센터엔 청년들만 있나요? 광주청년센터가 꼭 있어야 하나요?	
2. 운영지원팀	86p
광주청년센터 운영지원팀은 무슨 일을 하나요? 광주청년센터 예산 많나요?	
3. 거버넌스팀	92p
거버넌스팀이 뭐가요? 제(청년)가 말하면 뭔가 바뀌긴 하나요? 광주청년센터에서 일하는 거 재밌나요?	
4. 전략기획팀	100p
광주청년센터는 왜 홍보가 안돼요? 스스로 전략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광주청년센터의 전략이 뭐가요?	
5. 청년지원팀	108p
이걸 '진짜' 잘했다고 느낀 지원사업이 있나요? 광주청년센터 직원들도 청년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앞으로 광주청년들에게 어떤 지원을 해주실 계획인가요?	
마치는 글 광주청년센터 문 엽니다	116p
부록 광주청년센터 찾아가기	118p

저는  
광주청년센터의  
신입사원입니다

저는 신입사원입니다. 한 달여 전만 하더라도 취업을 위해 무수한 이력서를 작성했던 청년이기도 합니다. 힘든 채용 과정을 거쳐 입사가 확정되었을 때, 주변의 축하를 받으며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근데, 광주청년센터가 뭐하는 곳이야?”

〈2020 광주청년센터 결과보고집〉은 이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로 설립 5년, 짧지 않은 시간임에도 청년들은 여전히 광주청년센터가 궁금합니다. 한편으론, 청년들이 광주청년센터에 대해 더욱더 궁금증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광주청년센터가 어떤 곳인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지 마음껏 관심을 가져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덜컥 광주청년센터의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매년 출간되는 결과보고집이지만, 이왕이면 제대로 궁금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물론, 이 책 한 권이 청년들의 궁금증을 한 번에 해결해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단 한 분이라도 더 광주청년센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찾아와주신다면 절반이라도 성공한 게 아닐까요?

실제로 올해 광주청년센터는 여러 번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첫째로 코로나-19로 청년들의 공간대관을 중단했고, 둘째로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와 같은 대면 사업 대신 긴급구호물품 지원, 1인가구 지원사업 등을 진행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격동의 한 해 동안 광주청년센터는 많은 변화를 했습니다. 청년에게 더 가까이 가고자 지하에 있던 사무실을 지상으로 옮겼고, 숲을 넘어 청년에 더 집중하고자, 기관명을 ‘광주청년센터the숲’에서 ‘광주청년센터’로 바꾸었습니다. 어쩌면 신입사원인 저의 글로 결과보고집을 여는 것 또한 하나의 변화라고 할 수 있겠네요.

사실, 입사 2주 차에 광주청년센터의 한 해를 마무리 짓는 결과보고집 편집을 맡게 되었을 때, 많은 부담감과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직원 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묻고, 마지막으로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를 작성할 때가 되니 어느덧 마음이 코앞이 되었네요.

결과보고집을 만들며 가장 고민했던 것은 광주청년센터의 결과를 ‘보고’가 아닌, 청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없을까였습니다. 우리만의 언어가 아닌, 모두의 언어로 말이죠. 더 욕심을 내보자면 청년들이 읽으며 재미를 느꼈으면 했습니다. 앞선 광주청년센터가 뭐하는 곳이라는 질문에 ‘광주광역시 청년기본조례에 근거하여 청년정책을 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이다’라는 한 문장으로 쉽게 설명을 드리지 못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광주청년센터가 뭐하는 곳이야?”

전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미지의 공간이자 청년의 공간이라고. 너무 추상적인가요? 그렇다면 올해의 결과보고집을 보며 답을 알아가는 건 어떨까요?

첫 월급을 기다리며  
광주청년센터 신입사원 김하나

## Task Force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 대책 위원회,  
프로젝트 팀

청년의 날

정책

청년정책포럼

올해는 사회 전반, 청년정책, 광주청년센터까지 각각의 단위에서 모든 것이 급격하게 달라졌습니다. 모두를 힘들게 하고 있는 코로나-19는 사회 전체를 흔들었고, 청년기본법의 제정과 시행은 청년정책의 지각변동을 예고했으며, 광주청년센터는 5년 차를 맞아 5명의 신규 직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동안의 익숙했던 모든 것이 전환되어야 하는 시기였던 것이지요.

광주청년센터는 광주광역시의 청년정책 종합지원기관으로서 그 중심과 방향을 잡기 위해서 그동안 해왔던 사업과 계획된 사업 이상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올해 크게는 3가지의 프로젝트를 기획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프로젝트마다 그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팀의 경계를 넘어 구성되었습니다.

TF로 진행된 모든 프로젝트는 전환의 시작이었습니다.

시작이라는 것은 계속 나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직 완전하거나 충분하지 않다는 말이지요. 청년센터의 모든 사업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더 긴밀하게 연결되고 더 유연하게 움직이며 더 크게 상상해야 합니다. 이제 출발선을 지났습니다. 오래 걷게 될 길에 함께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거버넌스팀 팀장 서인희

광주청년센터의

2020

구분	1월	2월	3월	4월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청년정책 안내서
청년정책 홍보단 (정책커즈)				
청년 마음건강 상담소				
광주청년 긴급구호물품 지원사업				모집 및 운영
광주청년 1인가구 지원사업				
청년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사업 (공익활동형)	7기 드림터 모집	7기 드림청년 모집 및 운영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	1차 참여자 운영			
청년정책 실험실				
청년정책 교류 및 네트워크				
광주청년센터의 공간				
광주청년센터 Task Force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일상을 채우는 정책〉							
정책배송							
신규 홈페이지 개설 및 운영							
정책 홍보 영상 콘텐츠 제작							
정책커즈 1기 모집							
정책커즈 1기 운영							
일대일 상담 운영							
집단 상담 운영							
모집 및 운영							
전화 상담							
대면 상담							
8기 드림터 모집							
8기 드림청년 모집 및 운영							
2차 참여자 운영							
모집 및 운영							
지역 및 전국 청년정책 교류지원							
광주청년정책연구단(청년위원회) 운영							
전국 중간지원조직 교류							
공간 이전 및 개소식							
광주청년 인식 및 욕구조사 및 콘텐츠 개발							
청년의 날 캠페인							
청년정책포럼 '광주청년보장' 기획 및 진행							

청년이 없으면  
광주청년센터  
문 닫습니다

광주청년센터의 2020년 톨아보기

# 1

## 청년의 일상을 정책으로 채우다

'정책'이라는 단어는 이름이 어려울 뿐이지,  
알고 보면 일상생활에서 무척 유용합니다.  
하지만 청년들이 모든 정책을 알기엔 힘들겠죠?

광주청년센터는 청년이 소소한 일상 속에서도  
정책을 보고, 듣고,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길을 걷다가도 우연히 정책을 마주치고,  
정책과 더 친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흩어져 있는 청년정책, 하나로 모으기

일상에서 만나는 두근두근한 정책

홈페이지, 메신저, 책, 영상 등.

무엇이 편하신가요?

하나로 모았지만, 방법은 많습니다.

정책 정보가 있다, 청년 정보를 있다

광주에는 47개의 청년정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 산하 여러 기관에도 무수히 많은 청년정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수히 많은 정책들 중 청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정책은 몇 개나 될까요? 포털사이트에 검색해서 나오는 수많은 정보들 중 믿을 만한 정보는 또 얼마나 될까요?

청년정책 통합홍보를 통해 통합정책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은 이런 고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기관이 무슨 지원 사업을 하는지 굳이 자세히 알지 않아도, 광주 청년센터만 가면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하는 것.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들만 모아서 볼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통합정책플랫폼입니다.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정책을 만날 수 있도록

6개월 동안의 기획과 구성 끝에 올해 6월, 신규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광주 청년정책을 포함해서, 중앙정부의 주요 청년정책들을 검색해볼 수 있고, 관심 가는 정책들은 따로 표시해서 모아볼 수도 있습니다. 광주청년센터도 광주의 정책이기 때문에, 센터의 프로그램인 청년 마음건강 상담소, 공간대관, 청년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도 여기서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중요한 정보가 있을 땐 '정책배송'이라는 이름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드리기도 하고, 최근엔 정책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브이로그 형식으로 집을 구하는 주거정책영상이 공개되었는데, 이어서 <힐링캠프>나 <유퀴즈 온 더 블럭> 같은 느낌의 금융정책영상을 기획 중입니다.

온라인뿐 아니라, 책자로도 정책을 모아서 펴냈습니다. 주거, 건강, 출산·육아, 취업, 창업, 금융·부채, 수당·자립, 문화 등 여러 분야의 정책들을 책자 한 권만 펴면 알아볼 수 있는 '일상을 채우는 정책'을 만들었죠. 광주 관내 행정복지센터,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들에 비치해두었는데, 아직 못 보셨다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청년정책을 편하고, 재미있게

정책을 알리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알려도 못 봤다는 사람이 훨씬 많고, 저 또한 광주의 청년이지만 광주청년정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잘 알 수 없었죠. 고민을 거듭한 끝에 청년들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콘텐츠인 영상으로 정책을 알리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로 청년들의 '진짜' 이야기를 담아보았습니다.

영상을 만들면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은 '정책 정보만 일방적으로 전달하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 정책이 필요한지, 어떤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지, 청년은 이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공감하는 영상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각각의 영상을 기획할 때마다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지만, 청년을 포함한 사회구성원 모두가 재미있게 시청하고 공감할 수 있는 영상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궁극적으로 광주청년과 공감하고, 정책을 전달하고, 함께 고민하는 콘텐츠가 나와서 매우 흡족합니다. 앞으로도 광주청년의 일상을 정책으로 채우는 많은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니 많은 기대 바랍니다. 전략기획팀 팀장 박민국

저 역시도 인터넷 검색을 하면서 취업지원, 창업지원을 찾아 헤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찾아보기 편할지 많이 고민했습니다. 누구나 이용하기 편하게 만들면서도, 공신력을 갖추어야 했기 때문에 틀린 정보가 없는지 계속 체크했습니다. 홈페이지는 아직도 더 탄탄하게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입니다. 2021년에는 책자도, 홈페이지도 더 잘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략기획팀 이학영

### 청년의 시선으로 청년정책을 알아볼 수 있을까?

정책+er [명사]

정책의 주체가 되는 청년을 일컫는 말

정책 + checker [명사]

정책을 확인하는 청년을 일컫는 말

정책을 체크하고 널리 소문내는

정책커즈와 함께한 6개월

## 일상에서 우연히 만나는 청년정책

궁금한 게 생겼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게 무엇일까요? 친구에게 물어보기?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보기? 청년정책홍보단 <정책커즈>는 이 두 가지를 합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정책이란 것은 필요에 의해 본인이 직접 나서지 않는 이상, 무관심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주변 친구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우리는 귀를 쫑긋 세우게 됩니다. 뉴스에서 그렇게 언급을 하고 수백 개의 기사가 올라와도 요지부동이었었는데 말입니다. 그 이유는 친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는 아무래도 더 쉽고, 와닿기 때문일 것입니다.

청년정책홍보단은 이러한 맥락에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청년정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청년이, 정책을 직접 체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일상에서 더 쉽고 편하게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지금도 <정책커즈>에 의해 재가공된 정책들은 블로그와 유튜브와 같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청년들의 일상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 &lt;정책커즈&gt; 1기와 함께한 6개월

올해 6월, 지원서 접수와 면접을 시작으로 어느새 수료식을 앞둔 정책커즈 1기. 아쉽게도 15명 중 3명이 수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해촉되고, 12명이 수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콘텐츠들이 정책커즈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모 참치캔 광고를 패러디한 영상과 취업성공패키지 및 마을 청년 활동가 후기가 기억에 남네요. 이는 광주청년센터 홈페이지에 있는 '정책커즈 매거진'과 블로그,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니, 꼭 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활동을 마무리하며 실시 중인 만족도 조사에 의하면 모두가 정책커즈 활동을 통해 청년정책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해당 활동을 주변에 추천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진 목적에 맞게 만족도 조사 결과가 나온 것 같아 다행입니다. 또한, 과반수가 활동 연장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정도면 꽤 성공적인 시작이 아닐까요?

## 광주청년센터의 직원과 청년의 경계에서

정책커즈 분들의 콘텐츠를 보며 '나도 해봐야지!'라는 생각과 동시에 이 프로그램을 담당하게 되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저도 같은 청년으로서 정책커즈를 통해 광주의 청년정책에 대해 쉽고, 편하게 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론 코로나-19와 인수인계 과정에서 온 공백으로 정책커즈 1기 분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주지 못해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가오는 수료식을 통해 메꿔야겠죠?

내년의 정책커즈 2기는 변화를 좀 주고 싶습니다. 교류도 자주 하고(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콘텐츠도 유튜브와 블로그를 넘어 다양한 형태로도 개발해보고, 정책커즈 분들이 좋아하실지는 모르겠으나, 팀을 꾸려 콘텐츠를 만드는 활동도 해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활동해주신 정책커즈 1기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며, 좋은 인연이 어떤 형태로든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전략기획팀 김하나

## 우리는 정책을 체크하는 정책커즈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책커즈 1기 홍보단 양소현입니다. 9월, 설레는 마음으로 발대식을 시작했을 때가 엇그제 같은데, 어느덧 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다니...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처음 청년센터를 알게 되고 정책에 관심이 갖기 시작했을 때는 청년교통수당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러한 작은 관심이 홍보단 활동으로까지 이어진 것 같네요.

청년정책에 대하여 겪었던 궁금증과 어려움, 불편함들을 통해 정책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정책커즈 홍보단에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 저에게는 이런 활동이 소중한 경험이자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광주청년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가장 눈에 띄는 로고가 있습니다. "일상을 정책으로" 일상에서 우리는 불편하거나, 아! 이런 정책 있으면 좋겠다고 한번쯤 생

각을 하게 됩니다. 정책에 대한 작은 관심이 나비효과처럼 큰 날갯짓이 되어, 내 일상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일상을 보내는 한 청년으로서 청년정책에 관심을 갖고 몰랐던 정책들도 알게 되며 직접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런 정책들을 널리 홍보하기 위한 콘텐츠 작성에 있어 카드뉴스를 제작하고 블로그 기사를 작성하며 가독성 좋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고, 더불어 글을 잘 작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발대식부터 12월 수료식까지 코로나-19로 다른 커즈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적었지만 정책커즈로서 광주광역시의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여러 정책들을 알게 되어 말 그대로 '정책커즈'로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홍보단을 신경 써주시고 배려해주시는 담당자 선생님 덕분에 활동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저를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 더욱더 광주시의 정책과 청년 정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2021년에도 활동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번 2020년의 끝을 정책커즈와 함께 하여 매우 행복했고, 더 좋은 기회를 통해 앞으로도 이 인연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커즈 1기 양소현

안녕하십니까. 정책커즈 1기로 활동한 이창현입니다. 현재 저는 필리핀에서 생활을 하다가 코로나-19로 무급휴가를 맞아 본가인 광주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최소 연말까지 광주에 머물러야 하기에, 이런 저에게 맞는 청년정책은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이 기간 어떻게 하면 좀 더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찾고자 광주청년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정책커즈는 저에게 신의 한 수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제가 관심 있었던 분야와 장르를 통한 대외활동입니다. 평소 블로그 운영에 관심이 있었던 저는 한국에 도착 후 맛집에 관한 블로그를 소개하였습니다. 제가 관심 있던 분야였기에 흥미롭게 포스팅을 진행하였으며, 정책커즈가 된 이후에도 광주청년정책에 관한 글을 실으며 저에게 또는 타인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는 대외활동이기에 행복했습니다.

둘째, 나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정책커즈 활동 포스팅 중 광주청년 교통비지원에 관한 글을 포스팅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는 저에게도 해당되었으며 현재까지 알토란 같은 교통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한 정책커즈 활동비는 지금까지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간의 정책커즈 활동기간 동안 친절하고 따뜻한신 광주청년센터 직원 분들 또한 너무 인상적입니다. 지난 6개월의 만남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커즈 1기 이창현

9월 19일, 우리 모두가 청년입니다

우리 모두는 청년의 시기를 살아냈고,  
살아가고 있으며,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 우리들의 첫 번째 청년의 날

2020년 9월 19일, 제1회 청년의 날을 광주시민 모두와 기념하고자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청년의 시기를 살아냈고, 살아가고 있으며, 살아갈 사람들인 만큼, 특정 연령층만이 아닌 지역사회 모두와 축하하고 연대하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7월부터 9월까지, 포스터를 만들어 배포하고, 티저 영상까지 만들며 청년의 날을 준비했죠.

‘오늘, 모두가 청년입니다’라는 비대면 SNS 캠페인을 통해 많은 시민들과 함께 청년의 날을 축하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광주시민, 또 광주지역구 국회의원들도 참여해주셨습니다.

또한 다양한 연령과 직업, 환경을 가진 광주시민들과 함께 청년에 대한 경험과 생각을 나누며, 우리 사회가 청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영상 ‘가장 보통의 청년’을 제작했습니다.

‘청년’은 그동안 원하는 목표를 위해 투자하고 무언가를 포기해야 하는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사회의 미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고 안전한 오늘’이죠. 시민 모두와 청년의 날을 축하하고자 한 것은, 청년의 고통을 ‘젊은 날의 경험’으로 여기지 않고,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기 때문입니다.

### 함께한 사람의 이야기

#### 찾아가는 청년센터 대신 찾아온 청년의 날

청년기본법의 제정·시행으로 첫 번째 맞는 ‘청년의 날’은 어떤 이야기로 시작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인식의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

청년이 ‘특정 세대 집단’이 아님을 청년이 인식해야 하고, 사회구성원이 인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식은 ‘불안하고, 힘들고, 아프고, 미숙하거나 혹은 대단하

고 특별하고 성공한' 청년으로 양분되는 것이 아닌 '보편적인, 보통의 누구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청년의 날, 광주청년센터는 이러한 고민을 담아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거버넌스팀 팀장 서인희

상반기에만 해도 청년의 날 캠페인은 예정에 없었습니다. 원래는 '찾아가는 청년센터'라는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청년정책을 쉽게 접하기 어려운 청년들, 아이를 키우는 청년,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청년, 곧 20살이 될 예비 청년 등에게 청년정책을 알리고자 직접 찾아가기 위해 열심히 기획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까지요. 좀 있으면 괜찮아지겠거니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상황은 전혀 괜찮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사업을 전면 취소하고, 청년의 날 캠페인 TF를 꾸리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기획하고 준비하는데, 청년의 날은 정해져 있으니 시간에 쫓길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고생하고 보니 첫 번째 청년의 날을 의미 있게 기념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청년의 날이 생긴다는 것이 별로 와닿지 않았는데, 캠페인을 기획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2030만의 날이 아닌, 정책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모두 함께 연대하는 날이라는 점이 저 스스로에게도 의미가 깊습니다. 전략기획팀 이학영

# 2

## 청년의 일상을 안전하고 즐겁게

우리에게는 맛있게 식사하고,  
건강하게 하루를 보내고,  
사람들과 모여서 활동하고,  
모르는 것을 알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소개하는 사업들은  
청년에게 주는 '혜택'이 아니라,  
청년에게 보장해야 하는 '권리'입니다.  
광주청년센터는 청년의 당연한 권리가  
현실적인 고민에 밀려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도 든든, 마음도 든든.

지친 일상에 정책 한 끼.

당신의 일상은 안녕하신가요?

###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

2020년,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거나 휴직·휴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는 등 청년들의 생활불안정성이 증가했습니다. 광주청년 긴급구호물품은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물품지원을 통해 청년의 생활 안정화에 기여하는 것. 이는 곧 코로나-19 상황에서 청년들의 정책 수요가 다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실, 긴급구호물품 지원에 앞서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2월부터 11월까지,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였죠. 하지만 코로나-19의 감염확산으로 대면적 성격을 지닌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그램은 중단하고, 청년들의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식료품 지원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 지친 일상에 정책 한 끼

한 달 남짓한 시간 동안 465개의 지원, 그리고 지역기업인 광주 신세계의 기부금 10,000,000원으로 110개의 추가지원까지 이어져 총 575명에게 '더든든함'<sup>1)</sup>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공고에 대한 조회수가 19,094회까지 도달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그만큼 광주청년들에게 식료품 지원이 얼마나 필요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 함께한 사람의 이야기

#### 신청과정에서만큼은 피로감을 느끼지 않도록

광주청년 긴급구호물품 지원의 추진과정과 결과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청년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는 지원과정과 선정과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원자격의 완화를 통해 청년 모두가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함과 동시에 선정과정·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기록될 수 있도록 복잡하지만 라이브 중계와 기록이라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실시간으로 추첨되는 번호 안에 들지 못한 청년들에게 한편으로 아픔을 주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공정

1) 10만 원 상당의 식료품이 담긴 상자입니다.

함을 지키기 위해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이를 기록하려는 노력을 통해 청년들이 지원과 선정의 과정을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근거로 삼기 위한 절차였음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원과정에서는 청년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설명하지 않고, 광주청년인 것만 증명하면 되었기 때문에 청년들이 신청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줄이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 청년들의 식사권 보장을 통해 긴급한 안전망을 마련하였다는 데에 큰 의미를 가지면서, 동시에 이러한 식사권 보장과 같은 사회 안전망 확대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거버넌스팀 김경보

## 광주청년 1인가구 지원

---

### 나 혼자 '잘' 살고 싶다

**코로나-19로 사회가 어려워질 때,**

**1인 가구의 일상은 더 빠르게 취약해집니다.**

**혼자 사는 청년이 꼭 필요로 하는 물품을**

**같이 고르고 담아보았습니다.**

1	취업
2	지원
3	정책
4	일자리
5	자격증
6	알바
7	생활비
8	직업
9	금전
10	시험

4월의 식료품 지원에 이어 5월, 코로나-19 이후 일상을 준비하는 광주청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광주청년 식료품 지원 만족도 조사 결과, 취업(28%), 지원(19%), 정책(14%), 일자리(12%) 등이 언급되어 개인수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설계 필요로 추진되었죠.

1인가구 청년들에게 10만 원이 주어진다면

식료품	생활용품	생필품	도서
86	72	18	18

2020 광주청년 1인가구 지원사업 '같이담기' 역시 공고 조회수가 14,807회에 달하며, 물품지원에 대한 광주청년들의 여전한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1인가구 지원사업의 경우 식료품 지원과 달리 서류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서류심사 통과자들에 한하여 추첨을 진행한 뒤 선발된 전체 인원은 50명. 선정자들은 광주청년센터에 방문하여 10만 원 이내에서 도서, 생활용품, 식료품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같이 주문했습니다.

그 결과, 전체 구매 물품 수 중 식료품 86건, 생활용품 72건이 가장 높았고, 생필품·도서가 각 18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에 대한 수요가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밥도 좋지만...

간급구호 물품지원사업 이후 설문조사에서 청년들은 식료품 지원 이외에도 많은 정책욕구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중 특히 생필품·생활가구·생활가전 등에 대한 필요가 확인되었습니다. 지원 대상범위 선정에 많은 고심을 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의 지속에서 청년 1인가구가 겪는 어려움이 다른 형태의 가구보다 더욱 큰 상황임을 인지하고, 이를 기반 삼아 물품지원 대상자로 광주청년 1인가구를 선정, 이들에 대해 생필품, 물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동시에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사회와 단절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1인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 번 만남' 프로그램을 통한 설문조사로 1인가구가 현재 직면한 어려움들을 파악하고자 노력하기도 하였습니다.

청년들이 주로 활동하는 주간시간 이후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야간에 진행되었던 한 번 만남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방역수칙을 상호 준수하여 큰 어려움 없이 청년 50명을 개별적으로 만나 이야기를 듣고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하여 청년들에게 지역사회의 기관과 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유대를 형성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긍정적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거버넌스팀 김경보

## 청년 마음건강 상담소

마음도 소독이 필요해

마음에 담아둔 고민,

털어놓고 싶다면 찾아주세요.

온라인, 전화, 대면 상담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는

'같은 고민 상담소'는 어떠세요?

최근 5년간(2014-2018년) 연도별, 연령대별 정신 관련 질환(공황장애, 불안장애, 우울증, 조울증) 진료환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2014년	2015	2016	2017	2018	증감률 ((b-a)/a*100)
	(a)				(b)	
총계	1,294,225	1,343,899	1,450,237	1,545,336	1,705,619	31.8
0~9세	3,398	2,999	3,388	3,464	3,554	4.6
10~19세	43,510	42,393	48,471	54,126	72,216	66.0
20~29세	107,982	116,177	140,377	165,055	205,847	90.6
30~39세	164,777	169,751	186,426	205,297	230,586	39.9
40~49세	226,603	232,905	245,645	262,808	285,366	25.9
50~59세	280,752	285,268	295,461	303,394	320,708	14.2
60세 이상	511,856	542,265	580,279	608,203	650,654	27.1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김광수 의원실

### 20대 청년, 정신 관련 질환 증가율 1위

‘최근 5년간 공황장애, 불안장애, 우울증, 조울증 진료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해당 진료를 받은 환자는 총 1,705,619명으로 2014년 1,294,225명 대비 31.8%가 증가했으며, 20대의 질환 증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높은 고용 절벽 속 심각해지는 청년 취업난을 비롯해 학업, 결혼, 대인관계 등에서 스트레스로 청년들이 경제적·사회적·정서적 고통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환자들은 자신의 병이나 치료 필요성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자발적으로 병원에 찾아가기 쉽지 않습니다. 또한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증상이 심해질 경우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사전 예방과 치료가 중요합니다.

광주청년센터에서는 진로, 인간관계, 가족 내 갈등, 연애와 성, 스트레스, 우울증 등 다양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광주청년을 대상으로 전문 상담사와 함께 하는 무료 심리 상담, 청년 마음건강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고민, 걱정을 다루는 것은 물론 약물중독, 트라우마, 초기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만성질환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필요시 전문상담으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 2020년, 청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상담 방식은?

전화	대면	온라인	심리검사
383	279	65	55

올해 총 상담인원수는 153명(온라인 40명, 대면/전화 113명)으로 전화 상담이 383건, 대면 상담이 279건 온라인 상담은 65건, 심리검사는 5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한 상담 방식은 센터를 방문할 필요 없이, 본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할 수 있는 전화 상담이네요.

### 함께한 사람의 이야기

#### 심리 상담 받는 것을 어떻게 느끼시나요?

2015년부터 시작한 광주청년센터의 마음건강 지원사업. 2020년이 된 지금 여러분은 마음건강 잘 챙기고 계신가요? 심리 상담 받는다는 것을 어떻게 느끼시나요?

'상담'이라는 단어. 굉장히 모호하고 추상적인 것 같아요. 상담이라는 단어 앞에 무엇이 붙는지에 따라 우리가 느끼는 바는 달라지거든요. 휴대전화 상담과 법률 상담. 같은 상담이지만 그 무게의 차이를 느끼셨지요.

세상에는 참 많은 편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몸이 아플 때 병원을 가듯, 마음이 아프면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마음이 많이 아프면 정신과 진료를 받을 수도 있고요. 이 모든 과정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취업, 창업 등 사회진입에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저는 이 사업을 진행하며, 심리 상담이 일상적으로 편안하게 다가오는 단어가 되기를 바라고 바랐습니다. 털어놓을 곳 없는 막막함, 쌓여오는 스트레스,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황...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이런 상황을 고민으로 가져오셨거든요. 진로, 관계, 사랑, 가족과의 갈등, 부채 등 여러 상황이 한꺼번에 닥쳐오는 청년의 시기에, 누구나 쉽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마음이 아프면 심리상담을 받아보세요. 광주청년센터의 상담실은 항상 여러분에게 열려 있으니깐요. 청년지원팀 팀장 한승석

### 2020 참여자 통계표

2020. 11. 30. 기준

구분		온라인	비율	대면	비율	
인구 특성별	성별	남	14	35.0%	32	28.3%
		여	26	65.0%	81	71.7%
		기타	-	-	-	-
	나이	19~24	0	0.0%	30	26.5%
		25~29	11	27.5%	56	49.6%
		30~34	16	40.0%	23	20.4%
		35~39	13	32.5%	4	3.5%
	지역	동구	0	0.0%	14	12.4%
		서구	1	2.5%	30	26.5%
		남구	10	25.0%	18	15.9%
북구		3	7.5%	29	25.7%	
광산구		26	65.0%	22	19.5%	
직업	대학생	-	-	24	21.2%	
	취업준비생	7	17.5%	44	38.9%	
	직장인	15	37.5%	27	23.9%	
	사업	11	27.5%	1	0.9%	
	기타	7	17.5%	17	15.0%	
결혼	미혼	38	95%	110	97.3%	
	기혼	1	2.5%	3	2.7%	
	기타	1	2.5%	-	-	
소계		40		113		

구분		온라인	비율	대면	비율
고민 유형	진로탐색	11	16.2%	35	23.5%
	자아탐색	14	20.6%	44	29.5%
	연애와 성	4	5.9%	14	9.4%
	대인관계	20	29.4%	29	19.5%
	가족관계	8	11.7%	18	12.1%
	기타	11	16.2%	9	6.0%
	소계	68		149	

고민유형은 중복답변이 포함되어 있음

나에게 꼭 맞는 정책 솔루션

나에게 필요한 정책, 꼼꼼히 찾아드립니다.

어려운 정책용어, 쉽게 풀어드립니다.

복잡한 신청절차, 꼭! 집어 알려드립니다.

광주청년이라면 누구나 말입니다!

청년에겐 섬세한 정책 안내가 필요하다

청년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는 광주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1:1 맞춤형 상담을 통해 나에게 해당하는 정책정보를 안내하고 지원합니다. 사업의 이름처럼 청년들의 구체적 필요에 따른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안내를 통해 청년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청년들의 구체적 필요에 따른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 대해 궁금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청년계층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의 대부분은 일자리 영역, 생활지원 영역, 취업역량 강화 영역 등으로 각각의 부처에 의해 정책이 분절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정책의 특성상, 정책 및 사업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실제 청년 계층의 정책 체감도 역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발생합니다. 그렇기에 청년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는 정책의 안내 통로를 일원화하고 정책의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정리하여, 한 곳에서 신뢰감 있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세대 구성원은 단일하지 않고 청년문제는 복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만 해결된다고 해서 해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1 개별적 접근 필요합니다. 청년 개인마다 경제, 심리 등의 상황에 따른 필요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상황에 맞는 섬세한 정책 안내가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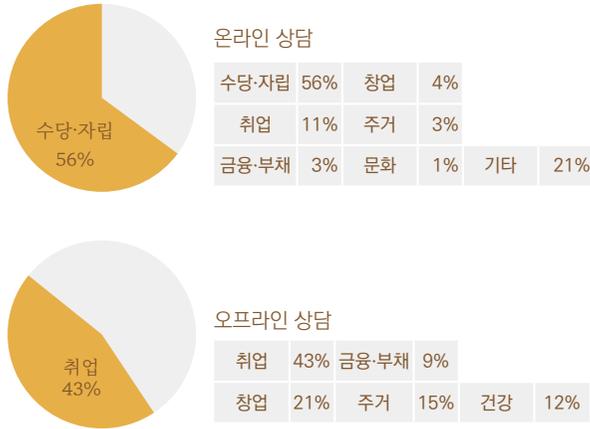
청년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현황

카카오톡	유선	대면	계
463	159	33	655

단위: 건  
2020. 11. 30. 기준

## 청년들은 어떻게, 어떤 정책들을 주로 찾았을까?

올해 코로나-19 상황 아래, 청년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무려 463건의 카카오톡 상담과 159건의 유선 상담 그리고 33건의 대면 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2020년 청년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현황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상담 분야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온라인 상담의 경우 수당·자립(56%)이 과반수를 차지하였고, 취업(11%), 창업(4%), 주거(3%), 금융·부채(3%)가 나란히 이어졌습니다.

그에 반해 오프라인 상담에선 취업(43%)이 과반수에 가깝게 가장 많이 다뤄진 분야였고, 창업(21%), 주거(15%), 건강(12%), 금융·부채(9%)가 뒤를 이었습니다. 대면 상담의 경우, 온라인 상담과 달리 수당·자립 분야는 사라지는 등 고민하는 지점이 확연히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함께한 사람의 이야기

### 내담자들과 함께한 2020년

코로나-19로 청년들을 많이 만나지는 못했지만, 상담을 통해 만났던 청년들이 아직도 다 기억이 납니다. 2020년 함께 해줘서 고맙고 2021년 하고 싶은 일들 다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짧은 상담이었지만 소중한 인연으로 간직하겠습니다. 거버넌스팀 김은희

매년 새로운 해를 보고 지내오지만, 유난히 긴 해였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짧은 시간에 다양한 내담자들을 만났고, 함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청년들에게 정책상담이라는 것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내담자의 첫 만남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귀 기울이며 듣다 보면 '그 동안 많이 고민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담하는 저 역시 같은 청년이다 보니 청년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걸 느낍니다. 더욱이나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이러한 문제는 더 크게 체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누군가에 또는 어딘가에 털어놓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함께 나누고 정책에 대해 안내받고 도움이 된다면 고민의 무게는 덜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담하면서 완전한 변화는 아니지만 짧은 시간 동안 상담사와 공유하며 시도하거나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 과정이 비록 쉬운 일은 아니었을 수도 있지만 감사하고 고마움을 느낍니다.

오늘이 그리고 내일이 청년들에게 더 나아진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거버넌스팀 박보라

청년에게 더 많은 경험과 기회를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사업(공익활동형)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NGO, NPO에서의

일경험을 지원합니다.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

진로, 취업부터 삶의 질까지.

청년에게 꼭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1.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사업(공익활동형)

광주광역시 및 인근지역에 소재한 비영리단체, NGO, NPO의 공익활동형 일경험을 통해 제3섹터와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서의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들의 자기 주도적인 진로설계와 역량강화를 도와 사회진입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함께한 사람의 이야기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코로나-19로 인해 지속적으로 많은 청년층들이 일자리를 잃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광주청년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사업(공익활동형)을 통해 조금이나마 청년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지원팀 나종대

## 2.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은 진로 및 일자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지역사회와 연계를 통해 발굴하여 심층상담을 진행한 후,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설계 지원하여 안정적 사회진입을 하도록 돕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청년재단의 공모사업으로 전국의 10개의 청년맞춤제작소를 운영 중이며, 광주청년센터에서 청년맞춤제작소in광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청년의 진로 및 일자리 문제

교육에서 노동으로의 이동이 단절된 이행기 청년문제의 정책적 빈틈을 채우고, 청년의 구직능력을 향상시켜 청년층의 고용진입을 촉진하고자 진로 및 일자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합니다.

###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 조성

청년들이 자기 진로를 탐색하고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취업 및 창업뿐만 아니라 건강검진, 법률, 채무 지원 등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 대해 지원합니다.

### 청년층에 특화된 분야별 전문 서비스 제공

일자리, 마음건강, 경험지원, 관계지원 등 청년의 참여욕구를 반영한 구직능력 향상 및 사회참여 역량강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비경제활동 및 니트 청년 인구 증가에 대한 사전적 예방

니트 청년의 사회 진입을 위한 사회적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여, 장기 미취업 청년 등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 청년들을 발굴해 사회진입을 위해 지원합니다.

## 함께한 사람의 이야기

### 청년맞춤제작소in광주의 제작자로서 함께한 시간

청년들의 취업지원 사업들을 해오면서 느낀 점은 청년이 취업을 하기 위해 겪는 어려움이 단순히 일자리 뿐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심리적인 어려움, 가족과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등 먼저 해소되어야 취업의 단계로 갈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은데 이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이었습니다.

개인의 진로나 현재 상황에 맞게 취·창업 지원뿐 아니라 심리상담, 식사비, 건강검진, 취업에 걸림돌이 되는 애로사항해소 지원, 본 사업과 병행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체크하면서 1:1 맞춤으로 지원해야 하는 매니저의 업무가 쉽지않은 않았지만, 참여 청년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으며 걱정 없이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 보람되었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참여 청년들과 관계를 지속하면서 막막했던 진로를 찾아가는 청년들, 힘든 일뿐만 아니라 기쁜 일이 생길 때에도 가장 먼저 소식을 전해주는 청년들을 마주하면 청년맞춤제작소의 제작자로 일한 시간이 감사합니다.

비록 올해로 광주청년센터에서는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이 종료되어 청년맞춤제작소의 제작자로서 청년들을 만날 수는 없겠지만, 본 사업에 참여하였던 모든 청년들이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에 청년맞춤제작소가 단단한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2019년과 2020년을 청년맞춤제작소in광주와 함께해주신 53명의 청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운영지원팀 이소현, 최마리

# 3

## 청년의 일상이 정책이 되다

청년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의 삶과 목소리입니다.

청년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삶이 잘 반영되도록 하는 것 역시  
청년센터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청년이 어떤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목소리를 모으고,  
청년이 직접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들을 소개합니다.

## 청년정책 실험실

청년의 시선으로 사회를 얘기하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분리수거를 하면서...

일상에서 보고 느낀 불편함과 고민들이

모두 정책 연구가 될 수 있습니다.

청년정책 실험실의 연구자는

청년 모두가 될 수 있습니다.

## 진행과정

1) 공모 및 선정	2) 준비	3) 착수 및 진행	4) 결과
일상연구(1팀), 정책연구(1팀)	협약식, 연구계획서 수정·보완	팀별 연구 진행 (5개월), 중간공유회  담당자·연구팀 월별 회의, 연구 자문 실시	결과물 제출 - 웹 콘텐츠 - 연구보고서

## 심사기준

연구주제(40점)	연구계획(30점)	수행역량(30점)
청년의 구체적 현실과 필요를 반영한 연구인가?  연구주제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한가?	연구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가?  정책제안으로 발전할 수 있는가?	연구를 수행할 역량이 충분한가?  연구수행에 있어 적극적이고 책임감이 강한가?

## 선정팀

일상연구	정책연구
퍼니라이프팀	아이앰팀
건강하고 공정한 문화예술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구 '공연 문화자 중심으로'	청년커뮤니티 지원이 청년의 삶에 미치는 영향 '광주청년센터 청년모임을 중심으로'

#문제발견 #정책및일상연구 #청년연구자

높은 청년실업률과 사회보험 배제 등 사회안전망 측면 모두에서 불안정성이 증대되었습니다. 고용안정을 넘어 청년의 일상(삶) 전반의 안정을 위한 정책적 기반 마련 필요해졌습니다. 청년이 정책 및 일상의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기까지 모든 과정에 동행하고자 합니다.

청년정책 실험실은 이전의 연구 경험 또는 이력에 상관없이 청년 스스로가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당사자 주도형 연구 사업으로, 그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지원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논문 형식의 결과 보고서 작성보다는 프로젝트 과정과 주요 핵심 결과를 강조하는 결과물을 제출하도록 하고, 서면으로 프로젝트 참여 후기를 수집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각 연구팀의 주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일상을 연구하다 : 건강하고 공정한 문화예술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 중이다.



상사 또는 클라이언트로부터 폭언을 당한 적 있다.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공연문화예술 종사자 48명 중 76%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전체의 34%가 상사 또는 클라이언트로부터 폭언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러한 침해에 대해 대부분(46%)이 묵인으로 대처하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열악하고 불공정한 노동 및 근로환경에도 직무만족도는 88%로 높았으나, 직업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느끼는 비율은 77%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정책을 연구하다 : 청년커뮤니티 지원이 청년의 삶에 미치는 영향

광주청년센터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 9명을 심층인터뷰한 결과, 이미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있던 그룹들이 금전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 참여하여, 삶에 획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향후 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소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인터뷰 결과, 청년의 커뮤니티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커뮤니티의 흐름,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섬세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으며, 연령대별, 청년의 상태, 욕구별로 커뮤니티 지원사업의 형식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 연구란 무엇인가

사업을 진행한 저조차도 연구가 주는 전문성의 느낌 때문에 연구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연구란 단어는 '같이 생각한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청년 연구팀들과 일상에서 발견하는 문제 또는 어려움을 정의하고 해결해나가는 뜻깊은 과정들을 같이 해나갈 수 있어 저조차도 성장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광주청년센터는 “모든 지역청년의 아이디어나 다양한 제안을 수렴하여, 연구 성과 또는 정책으로 연계되기까지 충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수행하는 <정책제안 또는 연구 플랫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버넌스팀 이야기

---

### 청년정책, 혼자 하면 안 된다

혼자서는 세상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함께 다양한 목소리와 힘을 모은다면,

조금씩 변화해가는 세상을

마주할 수 있지 않을까요?

## 서로 통하게 하고 그 관계망을 만드는 것

청년정책 교류 및 네트워크는 지역청년, 지역 내외 청년단체, 청년위원회, 민간 청년협의체 등 청년과 관련하여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모두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의 명칭 그대로 '서로 통하게 하고 그 관계망을 만드는 것'이 변하지 않는 목적인 사업입니다. 그 목적 안에서 사업은 유연하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요.

아마 '무엇 때문에 교류하고, 네트워크를 만들고자 하는가?'라는 질문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청년의 삶은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백 명의 청년을 만나면 최소 백가지가 넘는 상황과 이야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을 서로가 알고, 공감의 폭을 넓혀갈 수 있을 때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사회의 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혼자 힘으로는 바꿀 수 있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로에 대해 알고 공감하는 것이 처음이라면, 바뀌어나가는 작업을 위해서는 힘을 모으고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사회와 개인의 많은 변화 속에서 '공동체'와 '관계'의 개념도 계속해서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이 말하는 공동체와 원하는 관계는 청년의 시선에서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교류 및 네트워크는 '가능성'의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1. 지역 및 전국 청년정책 교류지원

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청년의 삶에 관련된 이야기를 어떻게 확장할 것인지 함께 고민하고 나누기 위해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전국단위의 오프라인 교류보다 지역 안의 이야기에 무게를 두고 진행했습니다.

2월	거버넌스 <sup>2)</sup> 구축을 위한 간담회
3월	온라인 안부문기캠페인I : 요즘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것은? SNS를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지금 결과보고집을 읽고 계시는 분들 중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계시면 기억을 더듬어 봐도 좋을 것 같네요.
4월	온라인 안부문기캠페인II : 코로나-19 흔들리는 우리의 일상 두 번째 캠페인은 구글폼을 활용한 설문조사로 진행되어, 총 275명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습니다. 청년축제 온라인 의견수렴 : 축제·문화 전문가 20명 의견수렴
4월~5월	온라인 정책교류 <긴급지원정책> 발송 3회 1. 광주광역시 가게긴급생계비 지원 2. 광주형 3대 긴급생계자금 지원 3.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6월~7월	조례 개정을 위한 청년기본법 설명회 <청년정책의 흐름과 청년기본법> 동영상 강의 제작
8월~9월	청년정책 실무전문가 서면교류회
10월	청년센터의 역할과 방향 정립을 위한 청년간담회
11월	협업프로젝트 <광주청년 인식 및 욕구조사> 결과 인터랙티브 콘텐츠 제작 오픈

2) 거버넌스에 대한 설명은 2부 제3장에서 이어집니다.

## 2. 광주청년정책연구단(청년위원회) 운영

광주청년정책연구단은 2015년부터 운영된 광주광역시 청년참여기구인 <청년위원회>가 변경된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기에 어려운 지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잠시 다른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6월	광주청년정책연구단 선정 및 팀 구성(45명, 7개팀)
7월	온라인 필수교육 총 3강 진행(페이스북 라이브) 1강. 광주광역시 청년정책 소개 2강. 시민참여예산제도의 이해 3강. 제안서 작성 실무 팀별 오리엔테이션 진행 7개팀, 이후 매월 팀별회의 진행
10월	팀장단 회의 1회 진행
11월	전체회의 1회 진행
12월	책자제작 및 연구마무리

## 3. 전국 중간지원조직 교류

청년 중간지원조직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기관마다 다른 고민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모두 '청년의 삶'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민을 나누고 서로에게 아이디어를 얻으며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사업입니다.

9월	전국 청년센터 워크숍(청주청년센터) 참여
11월	서울 청년정책 전달체계 포럼 참여 대구 3개기관 합동연구 <sup>3)</sup> 결과공유회 상생포럼 참여 전국 청년센터 협의체 발족식 참여

3) 「지역 청년활동지원사업 및 전달체계 성과평가와 내실화 방안 - 광주, 대구,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 4. 정책 \* TF

협업 프로젝트로서 가장 먼저 진행된 프로젝트는 '정책TF'로 지금 현재의 상황을 파악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양한 기사와 통계에서 보이지 않는 청년의 인식을 아는 것과, 광주광역시의 여러 정책 수행기관의 실무자의 인식을 아는 것이 청년의 삶을 반영한 정책의 기반 구축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지난 8월 14일부터 24일까지 11일간 광주 청년(광주 거주 만 19세 ~ 39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총 2,007명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지역(광주와 자치구)에 대한 이미지, 광주에 계속 살고 있는 청년과 광주를 떠나는 유출 청년, 광주로 돌아오는 유턴 청년에 대한 생각 등의 자세한 이야기를 결과분석보고서<sup>4)</sup>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의 여러 정책 수행기관의 실무자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제1장에서의 '청년의 날 캠페인 TF'가 꾸려졌습니다. 이후, '조사'와 '캠페인'의 연장선상에서 '광주청년센터는 사회에 어떤 질문을 던지고 무슨 말을 해야 할 것인가'를 정리했습니다. 현재를 정확히 진단하고 논의해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단순히 하루의 포럼으로 끝나는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포럼의 준비과정에서 청년의 삶을 알고, 제안해서, 실현되게 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4) 광주청년센터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던 순간의 연속, 다양함을 보여주고자 하는 갈망**

정책TF에 들어와 처음으로 맡게 된 저의 업무는 광주청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사는 코로나-19, 청년기본법 제정 및 시행 등의 전환의 시점에서 지역청년이 겪고 있는 일상, 인식, 욕구의 변화에 대한 기초 통계자료를 확보하고자 하는 시작점을 만들어보자는 취지였습니다.

또한, 수없이 많은 청년 실태조사가 수행되었지만, 저희 정책 TF팀에서는 “청년들의 삶을 어떻게 하면 단순한 수치가 아닌, 다면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그들에게 던지는 질문 자체에서도 거듭 고민을 했으며, 저 또한, 그 고민하는 과정에서 단순하게 객관적인 수치로만 청년을 바라보려만 했던 저에게 그들에 대한 인식과 이해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한 순간이었습니다.

연구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질문지를 설계하고, 조사를 수행한 경험이 있었던 저도 이러한 조사를 수행해 본 경험이 너무 신선했습니다. 사실, 연구를 하면서 본인 스스로도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순간이 시간적으로 충분하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유익미한 통계결과에 목을 매던 과거의 제가 아닌, 그냥 그대로의 청년의 변화된 삶과 시선을 그래프로, 표로, 다양한 형식으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 결과들을 작성하면서 힘들지 않았다면, 당연히 거짓말이고요. 힘들었지만, 그 과정을 돌이켜보면 정말 의미 있는 경험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결과들을 해석하기 위해 연구 보고서 및 논문을 참고하기도 하였지만, 다양한 출처의 청년들의 인터뷰, 기사, 글감들을 찾아서 그러한 결과들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조사를 시작으로, 청년의 다양한 인식과 시선, 상황 등을 보여줄 수 있는 조사와 분석이 실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조차도 그러한 조사를 설계하고,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팀원이 되도록 꾸준히 성장하겠습니다.

거버넌스팀 이아름

실무전문가 조사는 전문가들의 참여 요청과 대상자 확정에 있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기존에 이러한 조사가 지역에서 잘 이뤄지지 않아 낯선 조사였고, 특히 실무전문가들의 참여와 구체적인 이야기를 담아내는 데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초반 더디게 진행되었던 조사 설계 계획 과정과는 다르게 조사를 시작하자 많은 분들이 현장 실무자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고, 이러한 의견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청년정책이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지 짐작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실무전문가들의 의견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은 청년정책 관련 실무전문가들이 충분히 이야기하고 연계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그동안 청년정책 설계과정에서 어떠한 부분을 놓치고 있었는지 짐작하게 해주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실무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조사로 그들의 이야기 모두가 가치 있고, 한 명의 경험과 사례가 소중하였습니다. 각자 서로 다른 사업과 위치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청년을 대하는 마음만큼은 진심임을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였습니다. 거버넌스팀 김경보

8월~9월	'광주청년보장' 기획회의
10월	<p>광주청년 온라인 공론장 : '청년 목소리가 보여' 청년 91명의 목소리 수집 광주청년 의제발굴을 위한 '청년모임' 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광주청년정책네트워크</li> <li>·상상실현네트워크</li> <li>·청년문화허브</li> <li>·광주청년유니온</li> <li>·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li> <li>·사단법인 창업지원네트워크</li> <li>·광주이동청소년의회</li> <li>·청소년삶디자인센터</li> <li>·청년job희망팩토리</li> <li>·동네줌인</li> <li>·코끼리협동조합</li> <li>·광주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li> </ul>
	<p>광주청년 의제실현을 위한 '청년보장위원회' 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회의원 이용빈</li> <li>·시의원 최영환</li> <li>·지역공공정책플랫폼 광주로</li> <li>·참여자치21</li> <li>·광주 사회혁신가 네트워크</li> </ul>
	<p>코로나19, 청년의 삶 진단과 대응, 광주청년보장 진행 (유튜브 실시간 접속 최대 66명, 누적 조회수 640회 이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김광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청년비서관</li> <li>·이승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부위원장</li> <li>·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원</li> <li>·변금선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li> <li>·임명규 참여자치21 운영위원장</li> </ul>

**혁신적인 기획이었으나, 지역의 관심이 더 필요하다**

청년정책 또는 연구에 관심이 많은 저는, 평소에 선망했던 또는 보고 싶었던 분들 발제자로 한 자리에 모시게 되어 가슴 뛰는 순간이었습니다. 혹시나 다 섭외하지 못할까 조마조마했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포럼의 좋은 취지에 동의해주셔서 바쁘신 상황에서도 광주청년보장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 주기 위해 모이신 분들... 당연히 포럼 자체를 처음 준비한 저로서는 하나하나가 낯설고 어려웠지만 포럼 당일 날 가까운 자리에서 발제자분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어렵고, 어색했던 순간들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기대가 지역청년의 기대와 같지는 않더라도 비슷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실시간으로 생중계 시청하는 청년의 수는 많지 않았으며, 질문을 하는 청년들도 너무 제한적이었습니다. 제가 친구한테 얼마나 좋아할까 기대하면서 생일 선물을 줬는데, 그냥저냥 시큰둥한 친구의 표정을 본 느낌이랄까? 제가 아직 이런 큰 행사를 직접 준비하고, 그 결과를 체감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조금은 허탈감까지 들었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편에서는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이러한 행사에 더 관심을 가지게 하고, 이러한 결과를 많은 청년과 지역사회의 청년유관기관들과 말할 수 있는 장을 만들 수 있을까?, 다양한 홍보와 소통의 장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첫 단추를 꿴으니 점차 남은 단추를 지역 사회와 청년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꿴어나가야 한다는 생각과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저를 다그쳤습니다. 거버넌스팀 이아름

청년보장 포럼의 과정에서 '청년모임'은 청년활동을 진행하는 단체와 청년단체 그리고 유관단체와 기관들이 함께하였습니다. 처음 그들과 소통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협조까지 많은 고민을 통하여 청년모임으로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공문을 작성하여 발송하는 것이 아니라, 협조를 위한 전달의 방식에 진심을 담고 이

러한 진심에 공감을 바라고자 하는 마음이 개별 단체에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마음과 공감을 바탕으로 많은 단체들이 청년모임과 함께 해주었습니다. 청년모임은 청년 개인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넘어 청년이 직면한 상황과 관련된 의제를 발굴하고, 각자가 가진 전문성과 시선을 바탕으로 힘을 모으면 진행할 수 있는 의제를 추진할 것입니다. 처음이라 청년단체 간 협조하고 공론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나 이러한 단계를 지나면, 결국은 지역사회와 청년단체, 유관기관들이 함께 모여 힘을 낼 수 있는 구조로 정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버넌스팀 김경보

### 우리는 달랐기 때문에

저에게 “포스트 코로나 포럼”은 매우 생소한 단어였습니다. 왜일까요? 포럼이라는 단어도 평소에 접하던 단어가 아니었거니와, 포럼을 시작하기 위한 TF라는 구성도 처음이었기 때문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생소한 단어, 생소한 팀인 만큼 포럼을 준비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습니다.

사업의 기획에서 준비, 진행, 마무리는 물론이고, 사소한 부분까지도 여러 차례 점검하고 준비해야 했습니다. 나름 준비성이 철저한 편이라고 생각 했지만 실제 사업을 기획하는 것과는 다른 영역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중간중간 업무 교착상태에 놓여있는 경우가 일쑤였으나, 여러 사업을 경험해본 팀원들의 도움으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포럼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이유에는 아마도 우리가 ‘달랐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포럼을 기획하기 위해 거버넌스팀, 운영지원팀, 전략기획팀 총 세 팀이 만났습니다. 서로의 팀이 달랐고, 직책도 달랐으며, 바라보는 시각 또한 달랐습니다. 기획하고, 회의하고, 수정하고, 다시 회의하고를 반복하길 여러 차례, 포럼 일자가 다가올수록 업무에도 속도가 붙고 포럼의 형태가 갖춰져 갔습니다.

포럼을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달랐던 것들이 하나로 뭉쳐졌고, 하나의 목소리가 되었고, 목소리를 들어보며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생활에서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많은 ‘다름’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다름을 인정하지 못했을 땐 불편하게 보였던 것들이, 다름을 인정했을 땐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습니다. 포럼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더불어, 저에게는 더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었던 경험이었습니다.

우리는 같으면서도 달랐기 때문에, 다르면서도 같았기 때문에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운영지원팀 유동현

### 유연함을 갖춘 가능성의 사업, 청년정책 교류 및 네트워크

올해는 처음부터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저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았는데,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 꽤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우리 일상에 당연했던 것들이 흔들린 만큼 으레 해오던 모든 방식을 다시 고민하고 만들면서, 이 시기에 필요한 것과 가능한 지점들을 찾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았지만, 그만큼 즐거웠습니다.

앞서 소개드린 바와 같이 ‘청년정책 교류 및 네트워크’는 ‘유연함’을 갖춘 ‘가능성’의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어쩌면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이 이 사업의 유연함을 더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당연했던 기준과 제약이 허물어지면서, 어떻게 소통하고 무엇을 만들어야 할지에 대한 실마리를 조금 얻었습니다.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온라인의 방식이 훨씬 효과적이었습니다. 다만, 그렇게 모은 이야기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고 보여주고 다음 질문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 깊은 고민과 시도가 필요합니다.

청년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정기적인 구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의제를 만들어갈 수 있는 단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씩 바꾸어 나가기 위해서는 청년을 넘어 지역의 연대와 지지가 필수적이었습니다. 청년보장위원회는 청년에 대한 지역의 지지입니다.

내부에서도, 외부에서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으며 변화를 만들어 가는 과정은 더없이 즐거운 일입니다. 내년에는 교류의 구조를 안정화시켜서 두고, 응답하는 과정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느슨한 공동체’로서

서로에게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드라마틱하게 모든 것이 바뀔 수는  
없겠지만, 꾸준히 듣고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함께해주세요. 거버넌스팀 팀장 서인희

# 4

## 광주청년센터도 당신의 정책입니다

광주청년센터는

‘청년정책의 발굴·연구·추진을 위하여’  
운영되는 광주광역시청의 청년정책입니다.

청년들이 와서 상담하고, 공부하고,  
쉬었다 가는 청년센터의 공간.  
함께 고민하고 일하는 센터의 직원들도  
정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광주청년센터는 광주청년들에게  
더 편안하고 책임감 있는 더 좋은 정책이 되겠습니다.

지하의 문 닫고, 지상의 문 엽니다

좀 더 알기 쉬운 장소로 개방되었으면 좋겠다.

지하상가이다 보니, 길찾기 앱으로도 나오지 않아

처음 방문하는 사람은 찾기가 어렵다.

노후화된 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

2019년  
이용자 만족도 조사 中

새로운 곳으로 발을 디딘 날, 20년 5월 7일 이른 아침

“센터 어떻게 찾아가나요?”

지하에 있으면 걸려오는 전화의 일부는 센터를 찾지 못하는 청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상에서는 그렇게 잘 움직이던 핸드폰 속의 네비게이션이 지하에만 내려오면 도통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핸드폰만 있으면 어디든 찾아갈 수 있는 지금에, 참 어렵게 찾아오게 되는 센터였습니다.

센터 직원의 근무 여건 또한 열악했고, 금남지하상가의 상가 관리 특성상 언제든 계획이 변경되면 옮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황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센터를 찾아오는 청년들이 날씨의 변화를 알아차리기 어려운 지하보다는 지상에서 날씨의 변화, 자연의 시간 흐름을 느낄 수 있는 공간에서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청년들의 활동의 기본이 될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한 청년 생태계 조성, 맞춤형 정책상담, 심리 상담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여 청년들을 위한 거점역할을 할 수 있는 독립공간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계획 초기에는 전일빌딩 내 공간으로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센터 자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 부족, 사무공간과 대관공간의 분리에 따른 비효율성, 중심가에 위치해 있지만 찾기 어렵다는 접근성 등. 무엇보다 청년들이 공간 이용도 하고, 광주 청년정책에 대한 궁금증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없는 아쉬움으로, 많은 고민 끝에 2020년 5월 7일 현재의 공간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 함께한 사람의 이야기

### 저희는 오늘도 여기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이라는 말이 이렇게 어렵게 꺼낼 수 있는 말인지 올해 처음 알았습니다. 지하를 벗어나 지상에서 청년들과 함께하고 싶어 올해 초 좋은 공간을 찾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곳을 만나게 되었고,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을 만들고자 몇 개월을 고민하며 공간을 꾸몄습니다. 빨리 문을 열고 청년들에게 이 공간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센터의 공간은 청년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코로나-19로 활짝 열어들 수 없습니다. 어서 코로나-19가 지나가고, 마스크를 벗고, 청년들과 밝고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인사가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많이 기다렸습니다.”

청년들이 '광주청년센터' 간판만 보고, 편하게 문을 열고 들어올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찾아주세요.

저희는 오늘도 여기에 있습니다. 운영지원팀 팀장 김현희

어제보다 더 많은 청년들이 '광주청년센터'의 새로운 공간으로 한 명, 한 명..., 들어오는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예약자만 출입이 가능하지만, 가까운 시간 내에 센터가 청년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날도 곧 오겠죠?

운영지원팀 박남주

새롭게 시작하는 만큼 마음가짐도 새로이 하고 있습니다. 광주청년센터의 공간을 통해서 '광주청년센터' 하면 부담없이 방문하고 싶은 공간으로 기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방문해주세요. 운영지원팀 유동현

센터 공간 이전 전



센터 공간 이전 후



## 광주청년센터의 새로운 공간을 소개합니다

월-금 10:00~20:30, 토 09:30~17:30(일, 공휴일 휴관)



1층은 오픈형 커뮤니티 공간으로 부담 없이 들러 차도 마시며 이야기 나누고, 요리도 해볼 수 있는 편안한 휴식 공간입니다.



그리고 정책·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상담실이 있습니다. 단, 정책·심리상담은 사전예약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센터 직원들이 상주하는 2층을 지나면, 3층은 다양한 청년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대관 공간입니다. 공유홀과 두 개의 공유공간이 있는데요. 공유홀은 오픈형 커뮤니티 홀로 세미나, 강연의 목적으로 대관할 수 있고, 평소에는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유공간1·2는 소모임, 회의, 스터디의 목적으로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예약만 가능합니다. 광주청년센터 홈페이지의 공간대관에서 신청해주세요!

청년과 함께  
광주청년센터  
문답 씁니다

17명의 광주청년센터 직원들이 털어놓은 14개의 진솔한 이야기

# 1

## 센터장

센터의 조직 및 운영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누구보다 센터에 대해  
가장 잘 대답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요?

Q

**광주청년센터는 뭐하는 곳인가요?**

이 질문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청년센터라는 곳이 여전히 익숙하지 않고 생소하다는 의미일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광주청년센터는 2015년부터 청년정책기본조례에 근거<sup>5)</sup>해 설립됐는데요. 청년 세대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관심 있게 마주하고 필요한 정책들을 발굴·연구하고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직도 어렵나요? 좀 더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광주청년센터는 광주청년을 위한 곳이에요.** 그럼 누가 청년인가라는 궁금증이 들지 않나요? 나는 청년센터 사업에 해당되는 사람인가? 현재 광주광역시 청년정책기본조례에서는 만 19~39세를 청년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연령대의 청년세대에게 필요한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고민하고 연구하고 이런 내용을 행정에 제안하고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현재 광주청년센터가 운영하는 청년 마음건강 상담소, 커뮤니티 프로그램들을 통해 확인된 청년의 욕구를 분석하면서 실업률, 고용률과 같은 통계에서 말하지 않는 청년의 삶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정책의 사각지대도 확인하죠. 청년세대가 다양한 경험과 정체성으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도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정에 정책을 제안하고 필요한 정책(연구)을 직접 실험하기도 합니다. 청년의 목소리를 담은 소통의 통로가 되기도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광주청년의 목소리가 담긴 정책이 시행되고, 청년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 권리를 보장받고, 행복하게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곳에 광주청년센터는 함께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광주청년센터는 광주청년을 위해 존재해요. 언제든 편안하게 청년센터를 찾아주세요. 저에게 연락 주셔도 됩니다.^^

Q

**광주청년센터엔 청년들만 있나요?**

음... 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용하는 분들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선 광주청년센터 직원들의 나이는 20~30대 분들이 가장 많아요. 센터장 나이도 30대입니다.^^ 의도적으로 구성한 건 아니네요. 청년센터라는 이름 때문인 건지 활동의 내용 때문인 건지 지원하신 분들도 청년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청년세대에 대한 이해와 공감능력이 더 높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프로그램 이용은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모두 청년들인데요. 다만, 청년세대가 겪고 있는 문제는 단순히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저성장, 4차 산업 혁명, 최근에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의 상황이 모두 결합된 문제들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정치, 시민단체 등)와 긴밀하게 논의하고 함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을까요?^^

5) 시장은 청년정책의 발굴·연구·추진을 위하여 청년센터를 설치·운영한다.광주광역시 청년정책 기본조례 제10조(청년센터) 제1항

## Q

### 광주청년센터가 꼭 있어야 하나요? 청년기관은 다른 데도 많잖아요.

청년기관? 광주에는 청년정책을 수행하는 많은 기관들이 있어요. 물론, 정부 기관도 그렇죠. 창업, 일자리, 주거 등 무수히 많은 곳들이 있어요.

그런데 청년센터는 청년의 문제를 단편적으로 보지 않고 종합적인 관점으로 본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광주청년센터는 2015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설립된 청년센터로 청년, 정책이라는 용어가 생소했던 시기, 청년세대의 문제와 고민들을 사회적인 의제로 드러내고 일자리 정책을 넘어 청년의 시간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역할을 했던 곳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올해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이런 위기 상황 아래 청년세대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 문제는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소득이 줄었을 때 식사비를 가장 먼저 줄인다는 설문조사 답변을 보고 식료품 지원사업인 '더든든함'을 긴급 계획해 진행했어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어떤 세대만의 문제나 어려움은 아니었지만, 광주청년센터는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바라보고 필요한 것들을 찾고 고민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가능한 기획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이라는 이름이 차이가 되지 않게 청년 누구나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고 시민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고민하는 청년센터,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요?

## 당신은 누구십니까?

---

---

---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취업준비생  
고시준비생  
직장인  
부모  
자식

하나로 정의하기 어려운 '나'  
하지만 만 19~39세라면  
당신이 누구든지 광주청년입니다.

# 2

## 운영지원팀

광주청년센터의 사업, 운영에 대한 고민, 예산관리,  
대외협력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곳입니다.  
센터의 '중추'라고 할 수 있죠.

## Q

### 광주청년센터 운영지원팀은 무슨 일을 하나요?

운영지원팀은 센터의 모든 것을 함께하는 팀입니다.

첫째, 센터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업의 계획부터 결과 보고까지 센터의 운영 방향, 예산의 기준에서 잘 집행되고 있는지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갑니다.

둘째, 센터를 잘 이끌어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부분인 인사, 직원들을 위한 복지 등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갑니다.

셋째, 센터 운영의 기본이 되는 각종 규정, 문서 양식을 고민하며 만듭니다. 더불어 광주청년정책과 사업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함께 고민하며, 더 나은 사업과 센터 운영방향을 만드는 청년응원위원회를 운영합니다.

넷째, 사업운영지침, 회계규칙을 기준으로 예산이 잘 집행되고, 또 사업을 잘 운영할 수 있는 기준들을 함께 찾아가며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다섯째, 지역 및 타 지역의 유관기관 및 단체들의 방문, 자문, 자료 요청 등의 대외협력들을 통해 청년정책을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밖에 공간대관, 시설관리 등의 다양한 운영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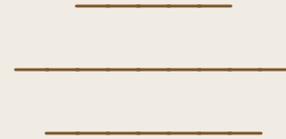
## Q

### 광주청년센터 예산 많나요?

광주청년에게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예산입니다. 그리고 광주청년센터에 예산의 규모는 매년 상이하죠. 때문에 예산의 규모를 많고, 적음으로 단언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청년센터는 예산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광주청년을 위한 정책 제안, 사업진행 등을 통해 광주청년이 일상에서 정책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주청년센터임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으니, 이것만큼은 알아주셨으면 해요!

## 올해 구입한 물건 중 잘 샀다고 생각하는 게 있나요?



저는 올해 6년 동안 쓰던 휴대폰을 바꿨어요.  
고장 나지 않았더라면 더 사용할 생각이었는데...  
평소 쓰던 물건에 애착이 심한 편이라서 아쉬움이 컸습니다.  
하지만 새 휴대폰에도 새로운 추억들로 가득 채워지겠죠?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 3

## 거버넌스팀

혹시 거버넌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올해 센터엔 거버넌스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정책 교류 및 연구, 민관협력, 청년정책 상담 및 연계 등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어떤 팀인지 감이 좀 잡히시나요?

## Q

### 거버넌스팀이 뭔가요?

거버넌스, 저희에게도 여전히 생소하고 어려운 단어입니다. 포털에 등록된 국어사전에서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주어진 자원 제약 하에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투명하게 의사 결정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제반 장치'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행정학용어로서의 거버넌스와 민간 기업이 말하는 거버넌스, 그리고 시민단체에서의 말하는 거버넌스는 모두 그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고민이 들었습니다. 거버넌스라는 단어는 명확히 개념화된 단어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광주청년센터의 거버넌스팀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희는 '청년의 이야기가 사회에 반영되도록 하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일을 합니다. 먼저는 계속해서 청년 개인의 삶에 가까이 다가가고 그 목소리를 듣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행정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지요. 전달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닌 양방향의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전체적인 커다란 흐름과 구조를 만드는 일이 청년센터의 거버넌스팀이 하는 일입니다.

## Q

### 제(청년)가 말하면 뭔가 바뀌긴 하나요?

내가 말해서 사회가 무언가 바뀌어 본 경험, 있으신가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경험을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회와 구성원이 모두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그 이야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답답함을 느낍니다.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지요. 아마 10년 전의 사회와 달라진 점일 것입니다. 변화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느리지만, 바뀌지 않는 것 같지만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계속해서 움직이면 바꿀 수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하나도 바꿀 수 없습니다. 다만, 청년센터는 그 변화의 속도를 조금 단축하고, 변화시키는 과정을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만드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어디에 이야기해야 할지 몰라서 못 하는 일이 없도록, 내 이야기가 어떻게 하면 논의될 수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어떤 과정으로 일이 진척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다면, 청년은 신뢰를 가지고 자신과 사회를 위한 이야기를 계속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쌓인다면 사회는 시민(청년)에게 가까운 방향으로 변화하지 않을까요?

'모든 변화가 발전은 아니지만, 변화하지 않는 것은 죽은 것이다.'라는 문장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만들어 갈 것이고, 그 변화가 발전이 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계속해서 찾아나갈 것입니다.

청년들의 말에는 보이지 않지만 힘이 있습니다. 광주청년센터는 이러한 청년들의 이야기의 힘을 모아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단순히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나아가 청년들의 목소리가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청년센터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무언가 변화를 만들어 내고자 항상 함께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목소리와 변화를 향한 노력이 있다면 변화는 마침내 일어날 것입니다. 함께 이야기해주시는 청년들이 많을수록 광주청년센터는 더욱 큰 힘을 얻게 되고, 이는 오롯이 광주청년들에게 좋은 변화로 찾아갈 것입니다.

변화를 위해서 광주청년센터에게 말해주시고, 광주청년센터가 전하는 다른 청년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다면 함께 변화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 Q

### 광주청년센터에서 일하는 거 재밌나요? 아무래도 다른 직장과는 다를 거 같아서요.

광주청년센터의 일하는 환경과 목표는 다른 기관들에 비하여 청년을 향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광주청년센터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조직입니다. 때문에 다양한 변화를 마주하고 있는 현재의 사회 환경에서 필요한 요소를 받아들이고 직접 변화하고 있습니다. 광주청년센터는 자유로운 휴가사용 및 출·퇴근 시간 준수로 기본적인 근무환경을 지키고 있으며, 이는 조직 내 큰 약속 중 하나로 센터 직원들이 이를 서로 준수하고자 노력합니다. 단순히 목표와 성과에 치중하는 일반적인 회사가 아니라 정책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도 다른 곳과는 다른 점입니다.

청년들의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직원들의 역량강화와 광주청년들과 함께하는 일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원 개개인이 청년과 관련된 일에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책임의식으로 일하고 있으며, 한 명의 청년의 질문이라도 쉽게 지나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답변하고자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습니다.

광주청년센터는 직원들의 청년을 향한 끊임없는 노력과 센터와 함께하는 많은 분들의 응원으로 청년들에게 더욱 좋은 청년정책이 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재미있다는 얘기는 결국 못 들었습니다. — 편집자 주)

## 올해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었나요?

---

---

---

제가 체감한 가장 큰 변화는  
코로나-19로 변한 세상입니다.

24시간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하고,  
사랑하는 이들과 편히 만날 수 없고,  
가게들이 줄이어 문을 닫고 있는 요즘.

이 변화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참 씁쓸한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변화는 즐거웠기를 바랍니다.

# 4

## 전략기획팀

(구)홍보기획팀에서 (현)전략기획팀으로.  
센터와 정책홍보의 비전 및 전략을 수립하고,  
브랜딩과 콘텐츠 기획, 그리고 SNS 운영과 같은  
전반적인 홍보 업무를 함께 담당하고 있습니다.

## Q

### 광주청년센터는 왜 홍보가 안 돼요?

2018년 (구)홍보기획팀에 입사한 이후 항상 모든 역량과 영혼을 끌어 모아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들으면 저도 고민을 합니다. 작년까지는 예산이 부족해서 홍보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이기도 했지요. 포스터 한 장을 만들어도 더 저렴한 곳을 찾아다니기 일수였으니까요. 그래서인지 관심을 유도하려고 '어그로'(관심을 얻기 위해 자극적인 글 따위를 올리는 것. - 편집자 주)를 끄는 데에 집중한다거나, '광주청년 누구나 볼 수 있게'라고 몽둥그려서 홍보를 했던 것 같습니다.

2020년 들어 생각이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 홍보는 정말 전략을 잘 짜야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쯤 부서 이름이 전략기획팀으로 바뀌었습니다. 좋은 시점이었어요. 2020년 들어 생각이 바뀐 계기가 있었습니다.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청년모험' 홍보 포스터를 만들던 때였어요. 저는 이 사업의 홍보 포스터의 주목적이 '무조건 사람들이 솔깃하게, 일단 신청해보고 싶게 만들기'였습니다. 그리고 솔깃하도록 내세울 수단은 '지원금'이었고요. 그런데 논의를 거치면서 이 포스터의 주목적과 수단이 효과적이지 못한 것이었다는 깨닫게 되었어요. '지원금'으로는 커뮤니티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기에, 지역사회에 공감을 얻기에도 부족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된 것이지요.

이후 이 홍보물의 전략은 '누구나 풍요롭고 신명나게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다'로 바뀌었습니다. 과정은 좀 힘들었지만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코로나-19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이 전면 취소되어 이 홍보물이 쓰이는 일은 없었습니다)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최고의 전략을 수립하자. 이 말은 당연한 말이지만, 실무적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좋은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1년 동안 많이 노력해왔고, 내년에는 더 좋은 전략을 만들 것입니다. 예산이 정말 많아서 TV, 유튜브, 카카오톡, 네이버, 버스, 택시 등등 매체마다 눈만 돌리면 볼 수 있게 만든다면 좋겠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전략이 있다면 입소문만으로도 홍보가 더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만족도 조사에서 아쉬운 점 항목에 '홍보부족' 수치가 가장 낮게 나오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할게요.

## Q

### 스스로가 전략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전략적이지만 때론 즉흥적이기도 해서 잘못하거나, 실수도 합니다.

하지만 광주청년을 위해서는 철저히 전략적인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아주 길고 지루한 장기전을 대비하려면 치밀한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거든요. 광주청년센터가 청년에게 꼭 필요한 곳이 되고, 광주광역시 청년정책을 가장 잘하는 도시, 청년이 살기 가장 좋은 곳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전략과 전술을 세우고 있습니다.

광주에 살고 있는 다양한 청년들이 처한 상황을 보고, 듣고, 느끼며 공감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지역과 사회가 청년에게 필요한 것을 마련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속에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찾아내고 있습니다.

할 일이 산더미처럼 많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 차근차근 전술을 펼치고 있어서 아마 앞으로는 광주가 청년이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청년이 미래라고 얘기하면서 사회로 안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기대할 수 없겠죠.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희망찬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광주청년센터는 청년에게 다가가고 청년의 목소리에 힘을 실겠습니다.

## Q

### 그래서 광주청년센터의 전략이 뭔가요?

전략(戰略, strategy)은 이기기 위한 책략이자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부터 이겨야 할까요? 누구와 싸우고 있을까요? 광주청년센터는 지금을 살아가는 다양한 청년의 고민과 어려움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청년에 대한 편견과 싸우고 있습니다. 청년은 젊으니까, 앞날이 창창하니까,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배운다는 말과 청년은 열정과 패기가 넘쳐야 한다는 편견은 청년의 문제에 대한 관심과 주의를 멀게 합니다.

광주청년센터의 전략은 사회가 청년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고, 청년 자신들도 정책의 주인으로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광주의 42만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청년이 살기 좋은 광주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청년과 밀착감 있는 소통을 하고자 SNS와 블로그, YouTube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SNS를 하지 않는 청년도 있기에 오프라인 홍보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청년센터의 공간을 열어 청년들이 모여서 쉬고, 편히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고, 정책을 쉽게 찾고 알아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 정책이 있고, 정책의 주인이 청년임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청년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 드리겠습니다!

**SNS를 자주 하시나요?  
한다면,  
최근에 올린 게시물이 뭔가요?**

---

---

---

전 요즘 제 개인 SNS보다 센터의 SNS를  
더 자주 확인하는 것 같아요. 하하하.  
(원래 잘 안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센터 SNS엔 ‘광주청년의 사회와 삶’에 대한  
모션기사와 ‘주거 정책’ 홍보 영상 글이 올라갔습니다.  
혹시, 우연히 마주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광주청년센터도 당신에게 ‘좋아요’를  
누를 준비가 되어있답니다!

# 5

## 청년지원팀

청년지원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팀입니다.

청년들에게 가장 와닿는 팀일 것 같은데요.

유쾌하면서도 진지한 답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Q

이건 '진짜' 잘했다고 느낀 지원사업이 있나요?

올해 딱 두 가지가 생생하네요. 먼저 코로나-19에 빠르게 대응하고, 지역의 후  
원까지 이끌어냈던 청년 식료품 지원사업 '더든든함'이 기억에 남아요.

'더든든함'은 광주청년센터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었을까요? 청년들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광주청년임을 증명하는 서류만 봤어요. 게다가 실시간 중계  
를 통해 추첨행사를 진행했고, 청년들은 각자의 집 앞으로 편안하게 식료품을 배송  
받을 수 있었죠. 공개모집부터 마지막 배송까지 약 한 달이 걸렸어요. 가장 쉽고 빠  
르게 정책효능감을 전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2,439명이 넘는 신청자가 신청했고, 실질적으로 575명을 선정했죠. 사업이 끝  
난 이후, 선정되지 못한 약 1,500명의 청년들이 눈에 아른거렸어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다음으로는 1인가구 지원사업 '같이답기'가 기억에 남네요. 원하는 품목을 함  
께 장바구니에 담는 과정에서 청년들이 정말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게  
됐는데요. 대부분의 청년들은 식료품과 생활용품, 생필품을 위주로 구매했습니다.  
1인가구로 살아가며 정말 필요한 것은 일상생활 지원이었던 거예요.

두 개 사업 모두 열정 넘치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에너지가 넘치는 담  
당자가 있었기에, 그리고 우리를 함께 지원하는 센터의 동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  
어요. 최고의 순간을 함께한 동료들을 평생 기억할 것입니다.

좋은 사업은 좋은 기억을 남깁니다. 담당자에게도, 청년에게도. 저뿐만 아니라  
청년들에게도 올해 최고의 지원사업으로 기억되길 바라요.

Q

광주청년센터 직원들도 청년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청년들을 위해 다양한 정책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대상의 조건에만 해당한다면 당연히 지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하지만 그걸 물  
어보신 게 아니겠죠? 광주청년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하신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쉽게도 광주청년센터 직원인 이상, 직접적인 지원은 받을 수가 없...어요...  
ㅠㅠ (실제로 더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 편집자 주)

예를 들면 올해 상반기에 진행했던 긴급구호물품지원 '더든든함', 못 받고요.  
네..., 돈 받는 것, 물품 받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하하하. 우리도  
청년이다. 우리도 받게 해달라!)

하지만 익명이 보장되는 심리상담 등은 당연히 직원들도 참여할 수 있고요. 그  
에 대한 제한은 없어요. 언제든지 고민 있으시면 심리상담 신청해보시고요. 단, 근  
무시간엔 안 됨. (단호) 필요할 때마다 이용해보시는 것은 어떠한가요? 직원들에게  
도 언제나 열려있답니다.

## Q

### 앞으로 광주 청년들에게 어떤 지원을 해주실 계획인가요?

고민이 많은 부분이에요. 저는 원하는 것을 쥐야 정책효과가 극대화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청년들이 원하는 지원을 해주고 싶어요.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중·고등학교 때 국어, 영어, 수학을 열심히 하고, 잘하면 원하는 대학을 갈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사회적으로도 국어, 영어, 수학이 '필요'하니까 계속 강요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강요한다고 국어, 영어, 수학을 잘하게 되던가요? 사실 원치 않는 공부인데 말이죠. 결국 효과는 떨어지죠.

“OOO이 필요하니까, 청년들은 OOO을 위한 정책을 이용하세요.”

이런 사고와 논리가 정책효과를 떨어뜨리는 게 아닐까요?

“어떤 삶을 원하는지, 어떤 일상을 원하는지, 어떤 게 있으면 그런 삶과 일상이 될 것 같은지...”

끊임없이 청년들에게 묻고, 또 묻고, 또 물어봐야 해요. 뻔한 대답만 나온다고 푸념할 것이 아니라 더욱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것을 고민해야죠. 처음 만난 자리에서 청년들이 원하는 걸 얼마나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뻔한 대답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질문을 준비하는 것도 우리의 일이니까요.

필요한 거 그만 지원하고, 원하는 거 지원하면 좋겠어요. 정책을 신청하거나 이용하는 현황만 보더라도 청년들이 어떤 지원을 더 원하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다가오는 2021년에  
가장 하고 싶은 건  
무엇인가요?**

---

---

---

2021년엔 청년도, 광주청년센터도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럴 수 있도록,  
광주청년센터는 노력하겠습니다.

버티는 것이 아닌,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잠깐 쉬었다 가도 될까요?”

광주청년센터를 방문해주시는 청년들에게 종종 이 질문을 받습니다. 코로나-19의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대관이 우선적으로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괜히 설레곤 합니다. 왜일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다가 답을 찾았습니다.

집을 제외하고, 청년들이 잠깐 쉴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될까요? 당장 생각나는 곳이 있나요? 앞의 질문을 했던 청년 중엔, 길을 지나가던 중 ‘그냥’ 방문한 분도 계셨습니다. 저는 광주청년센터가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목적이 없어도, 잠깐 쉴 수 있는 곳. 그것만으로도 광주청년센터의 존재 이유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적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것이니까요.

또한, 광주청년센터가 청년들에게 ‘어려운 공간’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센터에 대해 모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생각하여 멀리하지 않으시기만을 바랍니다. 청년이 없는 광주청년센터는 팔 없는 붕어빵이나 다름없으니까요. 물론, 여기엔 광주청년센터의 노력이 필요하겠죠.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에 의해 결정된 행동방침’이라고 하면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냥’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라고 하면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요?

2020년, 코로나-19로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기에 광주청년들이 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청년보장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모색하는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광주청년센터는 취업과 고용을 넘어, 청년의 모든 일상이 안전하고 즐거울 수 있도록 든든한 안전망이 되고자 합니다. 정책이 일상에 촘촘하게 스며들어 청년들이 일상 속 안전과 행복을 보장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광주청년센터도 당신의 정책이니까요.

## 랜선 방문



인스타그램 @gjyouthcenter



카카오톡 광주청년센터

홈페이지

[gjyouthcenter.kr](http://gjyouthcenter.kr)



블로그

[blog.naver.com/gjtheforest](http://blog.naver.com/gjtheforest)



페이스북

[facebook.com/gjtheforest](https://facebook.com/gjthefore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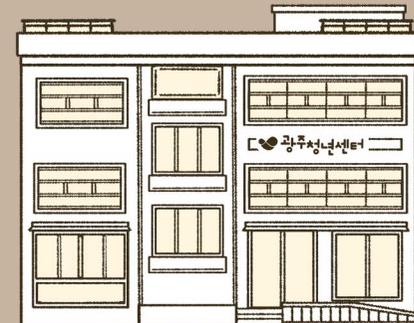


## 직접 방문



062. 232. 1939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길 38



## 함께하는 사람들

센터장

박수민

팀장

김현희

박민국

서인희

한승석

팀원

김경보

김은희

김하나

나종대

박남주

박보라

박현정

유동현

이소현

이아름

이학영

최마리



광주청년센터  
문 닫습니다

펴낸 날 : 2020년 12월 24일

펴낸 곳 : 광주청년센터

펴낸 이 : 박수민

기획 및 편집 : 박민국, 이학영, 김하나

교정·교열 : 김보라

디자인 : 라이트라이프

일러스트 : 이선미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길 38

T. 062. 232. 1939

H. [gjyouthcenter.kr](http://gjyouthcenter.kr)

F. [facebook.com/gjtheforest](https://facebook.com/gjtheforest)

B. [blog.naver.com/gjtheforest](https://blog.naver.com/gjtheforest)

Insta. [@gjyouthcenter](https://www.instagram.com/gjyouthcenter)

kakao. 광주청년센터

광주청년센터는  
광주광역시와 (사)지역공공정책플랫폼 광주路가 함께 운영합니다.

